

저출산·고령화 심화…전국 유일 3년 연속 ‘데드크로스’

<사망자가 출생아수 앞지르는 현상>

작년 1만6500명 vs 1만5100명…격차 해마다 벌어져

양육·교육여건 개선 등 적극적 ‘인구 늘리기’ 정책 필요

출생아 보다 사망자 많아

전남지역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전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데드 크로스’ 현상이 빚어진 전국 유일무이한 광역단체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와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1만6500명이 사망하고 1만5100명이 출생해 양자간 격차는 1400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27만5700명이 사망하고 43만8700명이 출생했다.

이 같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현상은 매우 아래적인 일로, 아직까지 전국적인 추세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다.

지난 3년 연속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전국 광역단체 중 전남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연도별로는 ▲2013년 사망자 1만6332명·출생아 1만5401명(격차 931명) ▲2014년 사망자 1만6053명·출생아 1만4817명(“ 1236명) 등이지만 전남의 경우 사망자와 출생아 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는 전남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초고령화·저출산 심화지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사망자가 출생자 수를 앞지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광역단체가 자칫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 등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거환경·자녀 양육 및 교육여건, 문화와 여가시설 개선 등 만 20~39세 가입 여성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외지기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을회관엔 70대 할머니들만…

지난달 14일 오후 강진 대구면 남호마을. 마을회관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마을 대부분의 여성은 70대로, 가장 젊은 여성의 나이가 38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65세 이상 노인 인구 20% 넘어선 초고령사회 급속 진입

5명중 1명은 노인

전남지역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초고령 사회의 진입에 따른 안전망 구축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9만4792명으로 전체 도민 190만4449명의 20.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14% 미만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20% 미만을 고령사회, 20% 이상

8개 시·군은 30% 넘어서

20% 미만 기초단체 5곳뿐

을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전남은 이미 저출산에 따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인데, 전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단연 전국 전국 최고 수준이다.

17개 광역단체 중 2위를 기록한 전북과 비율(18.1%)도 무려 2.6%p 차이가 난다. 특히 전남도 기초자치단체 중 초고령화 사

회로 진입한 시군은 무려 17개에 달한다.

이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기초자치단체는 8곳. 이들 시군 중 최고는 고흥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37.0%

에 달한다. 이어 ▲보성(33.9%) ▲함평(32.6%) ▲곡성(32.3%) ▲신안(32.0%) ▲진도(31.4%) ▲장흥(30.6%) ▲강진(30.5%) 등의 순이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이 2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광양(10.9%)·목포(13.3%)·순천(13.3%)·여수(15.8%)·무안(19.4%) 등 5곳뿐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전남지역은 2020년을

전후해 22개 시군이 모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만 16세 이상 64세 미만의 생산기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2020년엔 생산기능인구 3.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2030년에는 1.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에선 인구는 지역경제의 종착이라는 점에서 인구 절벽이 시작된 전남 경제에 심각한 위기감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함평·신안·곡성·구례 등 4개 교육지원청 통·폐합 대상

학생수 급감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방침에 따라 전남에서는 함평·신안·곡성·구례 등 4개 교육지원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예상된다. 이는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것인데,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및 지역 인구의 고령화 등과 맞물려 악순환하며 지역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과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교육부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 지원청 조직 효율화

지난달 말 기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2개 시군에 1곳씩 모두 22개 교육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인구수 3만명 또는 학생수 3000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은 함평·신안·곡성·구례 교육지원청 등 4곳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효율화 사업 기준에 따라 자율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함평은 학생(2849명)·교원(434명)·지원

청(35명) 등 3318명이며, 신안은 학생(2772명)·교원(493명)·지원청(43명) 등 3308명이다. 곡성은 학생(2574명)·교원(316명)·지원청(27명) 등 2917명이며, 구례는 학생(2563명)·교원(302명)·지원청(34명) 등 2899명이다. 통·폐합이 이뤄지면 함평과 신안은 인근 교육지원청과 통합이 예상되고 지역적으로 맞붙어 있는 곡성과 구례교

육청은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이들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면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반발도 만족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지역간 거리가 타 지역보다 면대다 신안의 경우 섬 지역 학교들이 많아 통폐합으로 인한 교육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외국인 인구 3만명 넘어서고 1인 가구 年 3만가구씩 늘어

급증하는 나흘로 가구

전남도내 외국인 인구가 지난해 말 3만명을 넘어섰다. 1인 가구가 꾸준히 늘면서 세대수는 증가하고 인구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남도가 외국인 통계를 작성한 1992년 도민 228만3858명 가운데 외국인은 750명에 불과했으나 23년이 지난 2015년 도민 193만9562명 중 외국인은 3만566명으로 급증했다.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0.033%에서 1.58%로, 조만간 2%선을 넘어서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 구성, 외국인 근로자 유입 등이 꾸준히 계속되고 고령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 추세도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인구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는 1995년 1244명, 2000년 4015명, 2005년 9260명, 2010년 2만1970명으로 2005년 이후 1만명을 넘어선 뒤 10년이 채 되기 전에 3만명 선을 넘었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에서 전남도내 1인 가구는 2000년 13만0679명, 2005년 16만3718가구, 2010년 19만7084가구로, 매년 3만 가구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1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국인과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정과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증-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사 최희석·정행진·김신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암·난임·성장장애·비만
피부질환·근골격계질환

대표전화 (062) 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406-증-81650호

www.sejonghospi.com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치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증,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증후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료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치료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천변 방향

세종요양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료·증통·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의사·한의사 협력 진료 병원

대표전화 (062) 236-5200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